2018 겨울호_www.hakdo.net

학도넷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발행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발행일** 2018년 12월 15일 | **총권** 47호 | **주소**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다락골길 164-24 | **전화** 02-720-7259 **팩스** 02-720-7259 | **이메일** hakdonet@hanmail.net | **편집** 학도넷사무처 | **디자인** 인디자인

학교 도서관을 여는 글

'한 학기 한 권 읽기'로 권정생을 만나다

2018년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초등 3학년부터 전학년으로 확대 시행되는 '한 학기 한 권 읽기'는 독서활동이 교과과정에 공식적으로 처음 자리하는 반가운 일입니다.

올해는 첫해이다 보니 혼란이 많았습니다.

어떤 책을 골라야 할지를 놓고도 교사들의 고민이 많지만 어떻게 운영할까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학급 아이들이 모두 제각각 관심에 따라 다른 책을 고르고 그 책을 천천히 꼼꼼하게 읽어낼지, 서너 명씩 모둠을 만들어 함께 읽을지, 학급 전체가 같은 책을 읽어야 할지…….

곳곳에서 '한 학기 한 권 읽기' 목록들도 넘쳐나고 있지만 어떤 책을 선정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교사들에게 저는 권정생 읽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스웨덴에 아스트리트 린드그렌이 있다면 우리나라엔 권정생 선생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한 작가를 온전히 깊게 아는 것이 책 읽기의 끈을 잘 이어 평생 독자가 되게 해줄 수 있겠지요.

권정생 선생님 작품이라면 아주 어린 독자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함께 읽을 만한 작품이 두루 많습니다. 권정생 선생님의 삶을 살펴보고 그 정신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고 자연을 참 따뜻하게 바라보게 하고 세상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억울하지 말아야 할 평화 이야기와 소중한 이웃과 함께하는 우리 삶 이야기들 권정생 특유의 재치가 살아있는 환타지까지 주제의식도 그렇고, 아픈 역사를 오롯이 그려낸 시대정신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지요. 무엇보다 때 묻지 않은 아름다운 우리말이 잘 살아 있어서 함께 읽기에 단연 으뜸인 이야기들입니다. 권정생 선생님의 작품들은 등대 같습니다. 두루 읽고 건강하고 따뜻한 정신을 나누는 가치와 역할을 확실히 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초·중·고를 거치며 권정생의 삶을 만나고 교사와 부모와 아이가 한 작가를 깊게 만나고 그 아이가 자라 부모가 되어서도 권정생을 자신의 아이와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권정생 읽어 주기로 하는 한 권 읽기

선생님이 먼저 책을 잘 골라 읽어주기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읽어주기는 사람들 마음을 풀어주는 힘이 있거든요. 잘 읽어준 책은 아이들이 다시 찾아들고 읽어내지요. 평생 가슴에 품을 나만의 책이 되기도 하구요.

권정생 함께 읽기로 하는 한 권 읽기

동무들과 함께 읽으며 왜 그랬어야 했는지 궁금한 것은 끝없이 질문하고 더 알고 싶은 주제를 찾아 깊게 이야기 나누고 자료 탐색도 하다 보면 스스로 해보고 싶은 것이 생길 거에요. 책에 나오는 놀이나 상황들을 겪어보고 싶게도 하구요. 관심사가 비슷한 아이들끼리 모둠을 정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책모임이 만들어지면 아이들끼리 서로 등 도닥여주며 함께 크는 또래상담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나아가 권정생 서평 쓰기로

이어지면 좋겠어요. '서평' 낯선 낱말입니다. 주관적인 느낌쓰기를 넘어 책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평할 수 있습니다. 촌철살인의 한문장 쓰기를 시작으로 200자 쓰기, 500자 쓰기…… 쓰는 힘이 늘어납니다. 당장의 효과보다 평생독자로 나아가는 나만의 서평공책을 마련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육정책, 교육자료도 교사를 뛰어넘을 수 없다지요. 교사 스스로가 자료이고 사람책이니까요. 한학기 함권읽기도 오직 교사의 열린 관심과 역량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열심히 준비하는 모든 교사들을 응원합니다. 한 권 읽기를 하며 아이들은 끝없이 질문을 해 낼 것이고 다양한 자료탐색이 학교도서관이 있어 가능해지겠지요. 이제 준비된 사서선생님들이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학교도서관의 활력을 기대합니다. 이런저런 걸림돌을 다 뛰어넘어 우리 아이들이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통해 자유롭고 자발적인 책읽기로 평생을 사는 활력장치가 될 인생책을 만나길 바랍니다.

김경숙 | 학도넷 상임대표

차례

01_ 학교 도서관을 여는 글

02_ 학교 도서관 탐방

03_ 이런 수업 어때요

04_ 추천도서

내가 권하는책

06_ '싸댕'의 좌충우돌 발해탐방기

김강리, 최상혁, 경다빈, 권현
김가람, 김종현

08_ 학도넷 소식

학도넷은 학교도서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또는 사서교사, 학부모, 학생, 문헌정보과 교수, 출판인 등 도서관과 독서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는 연대모임입니다.
학도넷 운동은 평등교육과 문화운동의 시작입니다.

학도넷소식지는 학도넷 운동의 일환으로 도서관과 독서운동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학도넷 회원(준회원 이상)님들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회원으로 등록하실 분은 학도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십시오. www.hakdo.net

학교 도서관을 풍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보낼 곳 : hakdonet@hanmail.net

지혜의 책울터에서 노올자~

– 정영희(서울고척초등학교 사서)

저는 고척스카이돔 야구구장 가까이에 있는 고척초등학교 도서관에서 15년차 근무하고 있는 사서 정영희입니다. 아마도 전국 모든 초등학교의 도서관 일상 풍경이 그러하겠지만, 저희 학교 도서관 풍경은 오전과 오후가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오전에는 학급별 독서교육이 이뤄지는 시간이기에 아이들과의 소통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지요. 저 역시 상황에 따라 아이들에게 엄격한 태도로 대하려고 노력(?)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방과 후 시간이 되면 아이들과 저는 무장해제 되어 도서관은 동네 사랑방으로 이내 탈바꿈합니다.

집에서 엄마에게 혼난 일을 필터링 없이 미주알 고주알 털어 놓는 아이, 학급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사건들을 시시각각 제보해 주는 아이, 담임선생님께 칭찬 받아서 우쭐해 기분이 up된 아이, 담임선생님한테 받은 과일맛 젤리를 손때 묻은 손으로 움켜쥐고 있다가 건네주는 아이, 가정환경으로 인해 너무 일찍 철이 들어 아웃사이더로 겉 돌아 또래 친구들과 소통이 어렵지만 저랑은 찰떡궁합 잘 맞는 아이, 1학년 때 소심하고 마냥 착하기만 했던 어린 소녀가 돌연 5년 만에 볼 빨간 사춘기 소녀로 나타나 날것의 유행어를 열거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아이…….

아이들의 외양이 다르듯이 도서실을 찾는 아이들의 욕구와 목적 또한 다릅니다.

표면적으로는 아이들은 책을 대출하러 오고 책을 읽을 목적으로 오지만, 그네들의 속내와 속사정은 다르기에 사서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여타 다른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컨텐츠와는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을 찾는 하루 평균 200명 남짓한 동심들과 만나면서 그네들의 눈빛에 일일이 답하려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바쁨을 핑계로 가벼운 눈인사만 주고받아 마음 한 켠에 미안함이 있지만, 아이들은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진득하게 기다려줍니다. 그런 마음을 알기에, 그런 마음이 고맙기에 그 다음날 왔을 때 속죄하는 마음을 담아 더욱 살갑게 대해 줍니다.

먼 훗날 고척의 꿈동이들이 초등시절을 돌이켜봤을 때, 고척초등학교 3층 도서실 마루에서 책읽어주는 엄마가 들려준 『아카시아 파마』 이야기를 듣고 반 친구들과 아카시아 파마를 직접 해보았던 경험, 『오징어와 검복』을 읽고 오징어 해부를 해보고 오징어 눈알에 경악을 금치 못하다가도 이내 잊고 오징어 튀김을 맛있게 먹었던 경험, 『양초귀신』과 『종이에 싼 당나귀』 옛이야기를 들으며 웃음보를 터뜨리며 시종일관 미소를 띄웠던 경험, 사서선생님이 특수 제조한 '악마의 피'와 '천사의 입맞춤' 쥬스를 마시며 현미건빵을 씹으며 '문제아' 노래를 들으며, 빗소리를 들으며, 외출한 엄마를 기다리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와 허물없이 놀면서 책을 함께 읽으면서 낙서놀이 하면서 보낸 그 시간을 그리워 할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내 맘대로 낙서'하고, 문삼석 시인의 동시를 베껴 쓰고 외우고, 도서관 출입문에 붙여놓은 요가포스터의 요가 동작을 하겠다고 하며 '5분 봉사'와 사탕으로 흥정(?)을 제안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진풍경이고 사랑스런 모습입니다.

지난 연말에는 그 꼬마 악동 예술가들의 동심을 한 권의 문집에 오롯이 담아서 비매품(출판사명: 영희와 철수)으로 발행하였습니다. 제가 늘 꿈꿔왔던 꿈의 도서관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지요.^^

저는 소망합니다. 아이들의 상상력이 성장기를 거쳐 물리적인 환경으로 인해 말살되거나 사그라들지 않기를……. 그 상상력이야 말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삶의 윤활유와 원동력이 될 테니까.

상상은 이곳에, 저곳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있다.

- 세르주 블로크(Inspiration here, there, and everyone.)

special thanks to

최고 多作 수환이,
괄목할만한 급성장 2학년 지수와 승연이, 5학년 현수
고척초 도서실 홍보대사 김지유
초지일관 나를 '작은엄마'로 부르고 싶어하는 한지유
내 유혹(컵라면파티)에 홀라당 넘어간 6학년 걸 크러쉬 소영, 성현, 예원이
사랑이 충만한 유혜,
사소한 내 말 한디에 웃음보 잘 터지는 지수와 서현이
그리고
아직은 도서관 책놀이, 낙서놀이에 동참하지 못한,
심심할 겨를이 없는 300여 명의 아이들
너희들, 그거 아니?
너희들이 내겐 선물이란다^^
(소영! 닭살멘트라고 놀리기 없기~)

책씨앗이 학교 도서관 선생님을 도와드립니다!

수서 100배 활용 도서목록
• 초등교과연계 추천도서
• 10대 키워드별 청소년 추천도서
• 온책읽기 추천도서

학교도서관 맞춤 독서프로그램
• 작가와의 만남, 체험 프로그램, 전시 프로그램
• DIY 책놀이, 독후활동자료

독서 문화 플랫폼 책씨앗에 지금 바로 가입하세요.
책씨앗 www.bookseed.kr / ask@bookseed.kr

서울 청계초등학교도서관 독서교육 프로그램

– 박영혜(서울 청계초등학교 사서교사)

학교도서실의 역할은 크게 교수-학습 지원센터, 독서교육센터, 레크레이션 센터로서의 기능을 해야한다고 말한다. 우리학교 도서실은 교수-학습 지원센터로서의 역할 40, 독서교육센터로서의 역할 40, 레크레이션센터로서의 역할 20의 비중을 두고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아이들의 독서습관을 정착시킬 수 있는 장기 프로그램과 함께 도서실에 오지 않는 아이들을 오게 할 수 있는 이벤트성 프로그램도 적절히 균형을 맞추어 운영해야 한다. 초등학교 도서실 이용 습관은 다른 어떤 도서실보다 아이들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초등학교 6년 동안 도서실은 편안한 곳, 즐거운 곳, 나에게 도움이 되는 곳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도서실을 운영하는 것도 초등학교 사서교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청계초등학교도서관에서 일년내내 상시 운영되는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해보려 한다.

연중으로 운영되는 독서교육 프로그램

독서프로젝트학습

•**운영목적** : 도서실 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활용능력을 키워 자기주도적 학습의 근간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교실 수업 개선에 기여함

•**프로그램 개요** : 연간 8차시에 걸쳐 교과 연계 및 진로 연계 프로젝트 학습을 실시함

•**세부내용**

기간 : 연중 / 대상 : 5~6학년

프로그램 진행방법

① 6학년 대상 교과연계 프로젝트 학습(1학기)

2~3명이 팀을 이루어 자신이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선정함. 도서실 수업시 정보탐색과정에 대해 알려주고 도서실 자료와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하도록 함. 마지막 8차시에 학급별 연구결과 발표대회 예선을 치루고 학급에서 선발된 친구들을 모아 학년 '독서프로젝트학습' 발표대회를 실시함

② 5학년 대상 진로연계 프로젝트 학습(2학기)

간단한 검사들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해보고 관련된 진로를 찾아 연구해보는 프로젝트이다. 교실에서 간단한 진로검사를 통해 진로탐색을 하고 도서실 수업시 정보탐색과정에 대한 수업을 함. 이후 8차시동안 도서실 자료와 인터넷 자료를 활용해 자신의 진로를 설계해보도록 함. 연구결과는 학급별 발표대회를 가진 후 학년 '독서프로젝트학습' 발표대회를 실시함

•**운영성과**

·교과와 관련된 주제를 선택하여 연구하는 프로젝트 학습으로 심화된 교과학습을 도움

·도서실 자료와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정보활용능력을 키울 수 있었음

·스스로 연구하고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울 수 있었음

·팀원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배려심을 키우고 자연스러운 협동학습이 이루어짐

·수업을 하는 동안 6학년 전체 누구도 수업에서 소외되지 않고 모두 참여하는 학생주도학습이 이루어짐

•**프로젝트 완료 후 학생들의 소감**

·나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숙제를 할 때 항상 인터넷에서만 찾았는데 책에서도 이렇게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 앞으로는 책도 많이 활용해야겠다.

·수업을 하는 동안 힘들었지만 다 끝내고 나니 뿌듯하다.

·친구와 함께 정보원에서 정보를 정리하고 알아봐서 재미있었다.

·이 수업을 하면서 야구에 대하여 더 알게 되어 좋았다. 이런 수업이 마지막이어서 아쉽다.

·수업하는 동안 내가 직접 조사하는 활동을 하여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 같다.

·내가 직접 주제를 정하여 적고 발표를 하고 할려니 떨리고 재미있었다.

·정보 과제 해결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이제 일상생활에서 궁금한 점을 혼자서라도 찾아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책읽는 도담이 1·2·5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요**

·1, 2학년 대상으로 하루 20분 50일(1학기 4~7월 / 2학기 9~12월) 동안 책을 읽는 프로그램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사이 가능한 시간에 도서실에 와서 20분 책을 읽고 도장을 받는 프로그램

·기간 종료 후 50개 도장을 받은 친구들에게 "책읽는 도담이"인증서 수여

책으로 달리자! 청계 어린이 독서마라톤

책 1페이지를 1m로 환산하여 자신이 원하는 코스를 정해 3, 4학년 대상으로 연중 책을 읽는 프로그램 / 책의 날 전후 ~ 다음연도 1월 말

구분	코스명	거리	페이지	1일 평균 독서량
개인전	거북이코스	10km	10,000페이지	약 36 쪽
	토끼코스	21km	21,000페이지	약 75 쪽
	월계관코스	42.195km	42,195페이지	약 149 쪽 (그림책은 약 5권)
커플전	토끼 커플코스	21km	21,000페이지	약 36 쪽
	월계관 커플코스	42.195km	42,195페이지	약 75 쪽

기간 종료 후 각 코스 완주자에게 "완주증"과 상품 수여

•**운영성과**

·연간 독서계획을 세워 꾸준히 책을 읽음으로써 독서습관 형성에 기여함

·꾸준한 독서로 독서력이 향상됨

·도서실에 있는 책만 대상으로 함으로써 도서실 이용률이 높아짐

고전읽기 1·2·3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요** : 고전문학을 통해 선인들의 전통 덕목을 본받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고전을 1년에 두 권, 세 번씩 읽는 5, 6학년 대상 프로그램

•**프로그램 진행방법**

① "꿈과 비전을 실은 고전 읽기 바구니"를 만들어 해당 도서 30권을 넣고 한 반이 한 주씩 돌아가면서 책을 읽음

② 아동들의 독서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파일을 만들어 스스로 체크해볼 수 있도록 함

③ 첫 번째 읽을 때는 입으로 읽기(소리내어 읽기), 두 번째 읽을 때는 눈으로 읽기(마음으로 읽기), 세 번째 읽을 때는 손으로 읽기(기록하며 읽기) 읽을 수 있도록 함

④ 고전읽기 도서목록

	1학기(인문고전)	2학기(문학고전)
5학년	명심보감이야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6학년	공부가 되는 논어이야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운영성과**

·고전읽기 활동의 시작으로 아침독서 시간 및 독서전용 시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음

·어려운 고전을 한 학기 동안 읽음으로써 학생들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음

·고전을 통한 바른 인성 함양으로 인성교육에 도움을 줌

생각이 쑥쑥 커지는 주제별 책읽기

•아동들의 편독을 방지하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있도록 도서실의 10개 주제(KDC)를 날짜별 스케줄에 따라 읽는 프로그램

•다양한 주제의 책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어 편독을 방지할 수 있었음

•방학 중 도서실 이용을 크게 증가시킴 (일일 70여명 이상 이용)

나는 도서관쟁이다

•친구와 둘이 와서 한 학기 동안 대출할 권수를 약속하는 프로그램

•대출 학생에게 선물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기간 중 도서실 이용이 크게 증가함

•친구와 함께 대출권수를 약속한 300여 명의 친구들이 꾸준히 도서실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5월 가족 독서 프로그램

TV, 컴퓨터 스마트폰 끄고 맛있는 책읽기

가정의 달 한 달 동안 TV를 끄고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여 가족 독서문화를 만들고 가족이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꼬리에 꼬리는 무는 독서

하나의 주제와 관련된 책을 읽어가는 프로그램

어린이사서 캠페인

매월 어린이사서들이 교문 앞, 학교 곳곳에서 캠페인을 실시함

서울 삼정중학교 '자율독서동아리'가 권하는 책

열여덟, 너의 존재감

박수현(지은이) / 르네상스 / 2011년 11월

『열여덟 너의 존재감』은 청소년들의 마음 아픈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다. 이 이야기는 총 3부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순정, 그림자, 강이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셋 다 자신의 스트레스, 문제를 담임 선생님인 쿨쌤 덕분에 해결해 나간다. 나는 이 책을 읽고 열여덟이란 숫자가 무겁게 여겨졌으며 미래의 나의 열여덟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이 책을 읽고 앞으로 다가올 열여덟, 이미 지나버린 열여덟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 삼정중학교 1학년 4반 구민희

그래도 나는 피었습니다

문영숙(지은이) / 서울셀렉션 / 2016년 9월

유리의 졸업식 날, 3년 전에 실종된 외할머니의 부음이 나눔의 집에서 전해왔다. 나눔의 집에서 전해 받은 외할머니의 구술집에는 일제강점기 때 어린 나이에 강제로 일본군에게 끌려가 그들의 성노예가 되어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보내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꽃다운 나이에 젊음을 누리지 못하고, 방직공장에 돈 벌러 간다는 거짓말에 속아 끌려온 소녀들의 억울한 마음을 친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다. 위안부 여성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위로하고 기억할 수 있게 하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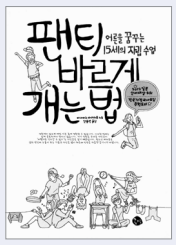
– 삼정중학교 1학년 5반 박소연

톡톡톡

공지희(지은이) / 자음과모음 / 2015년 8월

낙태는 현재 사회적 이슈이고, 다루기 어려운 주제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이러한 무거운 주제를 '슈가맨', '노랑 모자', '보풀'이라는 등장인물로 풀어나갔다는 것이 흥미로웠다. 책을 읽기 전에 '개인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왜 법으로 규제해야 하는 걸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니 낙태와 생명에 관하여 다른 관점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된 것 같다. 낙태를 법으로 규제할지, 말지 의견이 갈리는 요즘, 어떤 생명이든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 삼정중학교 2학년 1반 서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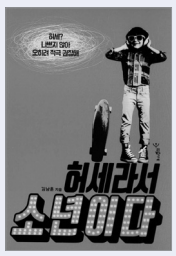


팬티 바르게 개는 법

미나미노 다다하루(지은이), 안윤선(옮긴이)
공명 / 2014년 12월

어른들 중에는 '진짜 어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그동안 제대로 집안일 하나 하지 않았다는 것이 부끄러웠고, 아침에 엄마가 깨워주셔서 겨우 일어나는 모습은 내가 스스로 자립하려 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했다. 이제부터는 스스로 살아가는,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팬티 바르게 개는 법」은 앞으로 근사한 어른이 될 청소년들이 꼭 읽어야 할 인생수업이다.

– 삼정중학교 2학년 1반 윤하경



허세라서 소년이다

김남훈(지은이) / 우리학교 / 2017년 2월

'허세라서 소년이다'는 제목 그대로 허세 부리는 법을 알려준다. 전직 프로레슬러 인생 선배는 자신감을 잃고 살아가는 소년들에게 허세가 나쁘지 않다며, 오히려 적극 권장한다. 자신의 부상과 그걸 극복하는 이야기를 통해 소년들을 교훈하지 않고 소년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또한 소년들이 하는 엉뚱한 행동들을 응원하고 공감해준다. 이 책을 읽은 소년들은 꿈꿀 수 있는 용기를 얻고, 나아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여유도 가지게 될 것이다.

– 삼정중학교 2학년 3반 서현석

하모니 브러더스

우오즈미 나오코(지은이), 고향옥(옮긴이)
사계절 / 2007년 12월

'하모니 브러더스'라는 책은 형이 가출을 하고 나중에 여자처럼 꾸민 모습으로 집에 돌아오는 내용이다. 사람들은 왜 여자, 혹은 남자 같지 않은 것에 편견을 갖는지 여자다운 것과 남자다운 것의 기준이 뭔지, 그 기준을 누가 정한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졌다. 자신이 어떤 모습이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상관없을 것이다. 누군가 꾸미는 것에 대해 시비를 걸거나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모습에 코르셋을 씌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 삼정중학교 2학년 4반 최영림

이게 정말 나일까?

요시타케 신스케(지은이), 김소연(옮긴이)
주니어김영사 / 2015년 9월

자기 자신에 대해 되돌아보고, 다시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림책이다. 이 책은 숙제가 싫고, 방청소가 귀찮아서 자신 대신 이 모든 일을 시키려고 로봇을 데려온 지후가 로봇에게 자기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로봇과 지후가 나누는 대화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단순한 주제이지만, 우리에게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라고 생각된다. 초등 저학년을 위한 그림책이지만, 어른이 되어서 읽어도 좋을 것 같다.

– 삼정중학교 3학년 3반 장지원

82년생 김지영

조남주 (지은이) / 민음사 / 2016년 10월

이 책은 주인공 '김지영씨'가 한국에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까지 김지영씨를 비롯한 주변 여성들이 겪는 사회의 부조리와 어려움을 담은 책이다. 윗세대부터 지금까지 맥을 이어온 성차별들에 깊은 공감과 분노를 느끼며 책을 읽었다. 인상 깊은 내용이 정말 많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여중생들이 바바리맨을 잡고도 되려 혼나는 장면이다.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주었을 바바리맨을 직접 잡아내는 모습이 멋있었고, 상을 주지 못할망정 학생들이 혼나는 모습은 어이가 없었다. 요즘 사회는 옛날과 얼마나 달라졌을까?

– 삼정중학교 3학년 3반 심은하

내가 권하는 책

대중음악 히치하이킹하기

김상원, 권석정, 백병철, 서정민갑, 이수정(지은이)
탐 / 2015년 8월

음악에 한 번 타보다

책 제목이 참 친근한 것 같다. 맨 처음 책을 고를 때 제목에 확 이끌렸다.

푸짐한 표지와 알록달록한 글씨들, 책을 읽는 도중마다 히치하이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면서 읽었다. 다 읽고 나니 왜 제목이 이건지,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된 것 같다.

'블루스, 포크음악 등 생소한 음악들을 멀리하지 말고 이 책을 한번 읽어보자.'

이 책을 읽기 전, 아니 이 부분을 읽기 전까진 블루스, 포크, 흑인음악 등은 록, 댄스 음악보다 훨씬 생소한 음악이라고 생각했다. 비문학이니까 그냥 내 관심 있는 장르만 집중해서 보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저 부분, 저 말이 나오고 나서 내 생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다 읽고 생각해보니 저 말은 이 책을 내가 끝까지 읽도록 이끌어 준 참 믿음직스러웠던 말이었던 것 같다.

이 책은 음악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나 처음 알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좋은 책이지만 음악을 어느 정도 알고 많이 접한 사람들도 재미있고 흥미롭게 읽힐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장르마다 작가가 달라진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하나씩 소개를 해주니 믿고 볼 수 있었다. 위에서 말했듯이 이전까지 나는 블루스, 포크, 흑인음악 등 관심 없었다.

하지만 천천히, 꾸준히 책을 음미하는 것처럼 모두 다 읽어보니 다섯 개의 장르 모두 다 정말 많은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말 다 읽고 나서 우리 조상들은 음악과 함께 살았고 우리도 항상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이 책은 어떤 장르에 특징이나 듣는 방법보다는 역사와 장르의 유래 위주로 내용을 풀기 때문에 오직 재미만을 위해 읽는 거라면 다소 지루함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천천히 다 읽는다면 읽는 동안의 그 시간은 금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솔직히 나의 바람은 더 많은 장르가 들어있는 후속작이 나왔으면 한다.

음악을 잘 알든 모르든 '음악'이란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길 권한다.

– 삼정중학교 3학년 5반 김동기

나는 간호사, 사람입니다

김현아(지은이)
쌤앤파커스 / 2018년 4월

당신은 알지 못하는 간호사의 삶

이 책은 메르스를 겪은 간호사가 쓴 책이라는 말에 끌려 읽게 되었다. 왠지 간호사와 묘하게 어울리는 초록 표지도 나를 이끌었다. 내가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내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간호사들의 삶과는 다른 모습이 펼쳐졌다. 간호사라는 직업은 생각보다 여유가 없고 환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야만 하는 직업이었다.

책을 읽기 전 간호사는 내게 선망의 직업이었다. 간호복을 입고 일하는 간호사는 너무나도 멋져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들은 누구이며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몰라도 너무 몰랐다. 이 책 속의 간호사는 내 상상 속 간호사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책을 읽기 전 간호사란, 단순히 의사를 보조하고 환자를 보살피는 일이라 생각하였다. 맞다. 하지만 간호사들의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그에 따른 고통도 따라야 했다. 밥을 먹을 시간도 화장실에 갈 시간도 없다. 밥을 먹다가도 환자에게 달려가야 하며, 화장실에 가지 못해 방광염이나 과민성 방광염을 앓고 있는 간호사들이 많다. 환자들을 보살피는 일 외에도 수 많은 일들을 해내야 하는 간호사들은 자신의 온 몸을 불태우고 있다. 이렇게 간호사로서 자신의 온 몸을 불태워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자신의 온 몸을 불태워 환자를 보살펴도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보호자들의 무시와 인권유린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이 책은 전반적으로 간호사의 삶을 잘 나타내면서도 중간중간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인권 유린, 처우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간호사의 하루'와 '간호사의 편지'를 통해 메르스 당시의 상황을 실감나게 나타내주고 있다. 나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은 알지 못했던 메르스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어 상당히 흥미로웠고 메르스 격리 대상자가 되어 환자들과 중환자실에서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힘듦을 이겨내고 자신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환자들을 위하여 병원을 지키고 있던 간호사들이 대단하고 존경스럽게 느껴졌다. 그 당시에 메르스 때문에 수학여행을 못 간다고 불평불만 했던 내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다. 나는 간호사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 혹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라도 이 책을 꼭 읽어보았으면 좋겠다. 나처럼 간호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알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

– 삼정중학교 3학년 3반 김현정

미스 함무라비

문유석(지은이)
문학동네 / 2016년 12월

웃고 생각하게 하는 책, '미스 함무라비'

2018년 상반기 JTBC에서 상영했던 판사들의 일상을 그린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를 아는가?

원작인 이 책은 드라마만큼 생생하며 재미, 감동, 지식을 준다.

내가 가장 유쾌하게 느꼈던 동시에 드라마에서도 유명했던 장면은 여주인공 박차오름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출근해 부장의 잔소리를 듣자 조신한 옷차림으로 갈아입겠다며 미리 준비해 온 히잡으로 옷을 갈아입어 모두를 당황케 하는 장면이다. 장면과 대사 하나하나가 보수적인 사회에 던지는 돌직구 같아 속 시원했다.

또 인상 깊었던 것은 한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1번 배심원이라는 인물이었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독거노인이 배심원이 되어 남편을 살해한 여자는 죽어 마땅하다는 그의 옛 관념을 뒤집어 배심 토의에 끝까지 열중하는 에피소드가 울컥했다. 1번 배심원의 입장에서 전개되는 그의 생각을 읽으며 사회적 약자를 공감하려 노력했기에 참 따뜻했던 장면이었다.

나는 처음부터 정의롭고 똑 부러진 성격의 박차오름을 무조건 옹호하는 반면 한세상부장을 보면 보수적이고 답답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책의 후반부에서 두 사람의 언쟁 후 한세상부장의 법정에서 가장 강한 자가 판사이기에 신중해야한다는 말에서 한세상부장이 후배를 챙기는 참된 어른으로 느껴졌다.

책에서 알게 된 사소한 것들, 예를 들어 판사가 사건 기록들을 수없이 넘기기에 골무를 낀다는 것, 여판사들은 무거운 사건기록을 가지고 다니기 번거롭기에 캐리어처럼 끌고 다니기도 한다는 것들이 그저 신기하고 재미있게 다가왔다.

또 각 장마다 법 전문가의 사회 분쟁에 대한 의견도 읽기 쉽게 풀어놓았기에 법적인 지식을 쌓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작가와 주인공이 모두 법조인이라 대화 수준이 굉장히 높고 매력적이라 나도 앞으로 내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지식을 더 쌓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참 영양가 있는 책이라 생각하기에 자신의 수준을 올리고 싶지만 어려운 책은 도전하기 힘든 친구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 삼정중학교 3학년 3반 한다빈

‘싸댕’의 좌충우돌 발해탐방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는 없다.
이것이 우리가 발해에 가게 된 이유이다.
강화도에 있는 바람숲도서관에서 싸댕의 새로운 친구들과 첫 만남을 가졌다.
2018년 활동 계획을 세웠고 김동헌 선생님한테 중국 동포 이야기를 들었다.
학교도서관 담당선생님 연수차 동북3성에 다녀온 이야기 속에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 때문에 우리 역사가 왜곡되어 중국을 관광하러 드나드는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전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발해가 중국에서는 조금 왜곡되어 역사 속에 남아있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그 곳에 사는 우리 동포들도 발해라는 우리의 옛영토에 대해 그리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니 좀충격이었다. 나도 발해에 대해 아는 건 ‘대조영이 세웠다’, ‘해동성국이라 불렸다’ 정도였고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울 때도 아주 잠깐 배웠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인지 내 친구들도 발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다른 나라 역사도 아니고 우리 역사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니…… 조금 부끄러웠다.
만약 우리가 발해에 대해 무관심하면 발해 역사를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발해에 대해 공부를 하고 발해를 탐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그리고 우리가 발해에 대해 책읽는 경강선이나 캠페인을 통해서 알려야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내 꿈은 역사학자인데 발해를 연구하는 역사학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다. 한편 우리가 발해에 대해 공부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도 있었다. 그렇지만 유득공의 「발해고」(서해문집 펴냄)를 싸댕 동아리에서 함께 읽기로 결정했다. 매월 1·3주 금요일 저녁 7시에 토닥토닥도서관에 모여서 「발해고」를 읽었다. 책을 펴는 순간 ‘아~ 쉽지는 않겠구나!’ 생각했다. 단어도 지역도 참 많이 낯설었고 발해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어서 김동헌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으며 책읽기를 해도 그날 읽은 건 그날 까먹고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는 2주 후에 만나면 기억조차 안 났다. 발해에 대해 공부할 때마다 발해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을 때는 뿌듯하기도 했고 발해탐방을 정말 간절하게 가고 싶었다. 멀게만 느껴졌던 발해의 지명이나 생소했던 단어들이 점점 친근해질 때 드디어 발해탐방의 기회가 찾아왔다.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었지만 아름다운재단에서 청소년 자발적 여행활동 지원사업에 신청을 했으나 결과는 실망스럽게 탈락했다. 선정되지 못하여 넘 속상해 하고 있을 때 싸댕선생님의 도움으로 여주시청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으로 발해탐방을 가게 되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맞았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발해여행 계획을 짰고 발해를 공부하다보니 고구려 역사에도 관심이 생겨서 고구려 유적지도 넣었고 백두산도 가고 싶어서 백두산 산행도 넣었다. 그리고 민족시인 윤동주시인의 생가도 방문하려고 했다. 하지만 5박6일의 중국 역사탐방으로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모두 탐방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학도넷 ‘바람과 만남’에 합류하여 어른들과 함께 발해역사기행을 가기로 결정했다.
드디어 우리가 꿈에 그리던 발해에 간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졸린 눈을 비비며 설레는 맘을 안고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여권심사도 캐리어 검사도 17살 생애에 처음 경험하는 거였다. 드디어 우리는 목단강 공항에 도착했다. 넓게 펼쳐진 평야, 사방을 둘러봐도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밭, 미리 걱정했던 것보다 맛있었던 중국 흑룡강성 녕안시의 음식들은 생각보다 여행이 공부스럽지는 않았다. 항일 유적지인 김좌진 기념관에 들렀을 땐 중국말로 유적지 설명을 해주시는 관리인(촌장) 때문에 좀 안타까웠다. 다행히 함께 동행하신 선생님이 김좌진장군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듣는 동안 ‘난 역사를 많이 모르는구나’ 생각하며 조금 부끄러웠다.
다음 일정인 경박호로 이동하면서 하루의 일정이 일기장처럼 머릿속을 천천히 지나갔다. 우리가 발해에 대해 열심히 공부한 만큼 발해 유적지가 눈에 더 잘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다음 날이 기다려졌다.

(여주 여강고등학교 1학년 김강리)

둘째 날 아침 호텔조식, 좁쌀죽과 빵 등 여러 음식을 맛있게 먹던 중 빨간색 두부 같은 것을 보았다. 선생님들은 그것이 취두부라고 했다. 취두부에 와인을 뿌려 놓은 음식이라고 했는데 참 예뻤다. 어떤 맛일지 궁금했는데 용기를 내어 한 조각을 통째로 먹었다. 겉모양만 보고 덥석 먹은 취두부는 여러번 입을 행궈도 냄새가 가시지 않았다. 와인맛은 더러운 맛이구나! 생각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와인 맛이 구역질 나는 맛이 아니고 취두부가 내 입맛에 안 맞은 거였다. 드디어 세계 3대 휴양지인 경박호를 배를 타고 다니며 구경했다. 발해의 왕들도 등소평도 여름 휴가를 즐겼다는 곳이어서 그런지 관광객도 무척 많았고 멋진 집도 있고 호수의 풍경도 멋있었다. 관광지인데 생각보다 물도 깨끗했고 주변 환경도 정리가 잘 되어 있었다. 이렇게 아름다우니 발해의 왕들이 경박호에서 여름 휴가를 즐겼겠지? 난 옛날에 태어났으면 여기 올 수 있었을까? 왕의 시중을 들고 있는 하인이었을까? 즐기는 왕족이었을까? 이렇게 아름다운 곳도 항일 유적지일까? 배를 타고 다니며 많은 생각을 했다.

(여주 세종중학교 1학년 최상혁)

우리는 경박호에서 나와 발해궁터와 발해 박물관으로 갔다. 상경용천부 발해궁터에는 교과서에서 봤던 석등과 대조영이 먹었던 것으로 추정돼는 우물을 발견했다. 우리는 발해진조선족소학교 교장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어린시절 발해궁터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들었다. 발해궁터에서 성의 주춧돌에 발을 대고 발사진을 찍고 15명의 발해왕 초상화를 감상하며 발해왕들을 중국에서는 왕의 모습이 아닌 신하의 모습처럼 표현한 것 같아서 좀 속상했다. 발해 박물관에서 3성 6부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책에서 봤던 내용과 조금 달라서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안했나?’ 이런 생각도 했다.

(여강고등학교 1학년 김강리)

셋째날 일정은 흑룡강성 녕안시 조선족 소학교와 중학교 학생들과 교류의 시간을 보냈다.
전 날 우리 다같이 모여 중국동포 친구들과 재미나게 놀 방법을 연구하고 그림책을 읽어주며 동생들한테 책놀이로 언니 노릇을 하려고 준비했다. 2인1조가 되어 놀이방법을 나누었고 선물할 그림책들을 가방에 챙겨 놓았다. 안 떨리는 척 했지만 무척 긴장되었고 다른 맘은 기대 되기도 했다.
녕안시 조선족 소학교와 중학교는 우리나라 학교의 모습과 비슷했다. 넓은 운동장, 초현대식 도서관, 아파트로 둘러 쌓인 학교 모습이 도시의 학교 같았다. 여주가 녕안시보다 더 작은 동네인 거 같았다. 멀리서 온 우리들을 반갑게 맞아주셨고 책놀이에 참여하는 동생들도 처음에는 어색해서 조금 어려웠는데 청년멘토 산티(권산)가 게임도 진행하고 책도 읽어줘서 끝나는 시간이 아쉬웠다.
소학교와 중학교 학생 50여 명이 함께 모여 플래시몹 ‘무슨 책 읽는거?’, ‘책 속 주인공을 누가 가장 많을까?’ 이런 놀이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였는데 헤어지는게 서운했다. 오후 우리는 차를 달려 중국과 러시아 구경도시 수분하로 이동했다.

(여주 세종중학교 1학년 경다빈)

[편집자 주] '싸댕'은 여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의 청소년독서동아리다. 한글시장 토닥토닥도서관을 중심으로 모여 활동한다. 달마다 마지막 주(토요일 오전10시 20분부터) 여주역을 출발하는 경강선 천철 안에서 책읽기 캠페인과 플래시몹을 진행하는 '책읽는 경강선'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발해기행으로 교류를 가졌던 흑룡강성 녕안시조선족중학교 학생들 10명을 2019년 1월 한국으로 초청해서 교류를 다진다.

넷째날 아침 우리는 수분하호텔에서 일찍 나와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을 넘기 위해 출발했다. 육로로 국경을 넘는 것도 처음이고 발해지역 안내를 해 준 성혁쌤도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고 하고 내가 러시아에 들어가면 비자서류도 우리가 직접 작성해야 한다고 해서 막 떨리고 긴장되고 조금 무섭기까지 했다.

우리가 넘는 국경은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이라서 사진을 찍을 수도 없다고 했다. 내가 16년을 살면서 처음 경험하는 순간인데 사진을 남기지 못해서 아쉬웠다. 그리고 버스 역에 도착했는데 중국에서 넘어오는 보따리 상인들이 많았다. 어떤 어린이는 자기 몸보다 두 세배 커다란 짐을 지고 국경을 통과했다. '왜 수분하를 넘어 온 상인들은 짐을 그렇게 많이 들고 다닐까?'사람들이 너무 많고 공간이 너무 비좁아서 다닥다닥 붙어서 국경버스 타는 곳으로 같다.

몇 번의 중국국경수비대의 검문검색과 러시아 입국절차를 거치고 러시아 빠그라니치느이 작은마을에 내렸다. 거기에서 우릴 기다리는 대절버스와 유라쌤을 만났다. 러시아지역을 안내해 주시는 유라쌤은 우리는 세계시민이라는 얘기를 자주 하셨다. '세계시민이 워지?' 궁금했지만 여쭤보지는 않았다. 러시아 우스리스크에서 묵을 숙소에 도착했다. 너무 좁았다. 그리고 여행 중 풍경은 낡아 보이지만 멋있었고 경치도 아름다웠다. 화장실은 계속 돈을 내고 이용해야 했다. 배탈로 우리의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은 관계로 점심을 조금만 먹으라고 했으나 밥과 고기, 빵을 너무 많이 먹어서 선생님이 우릴 쳐다보는 눈이 '저것들이 진짜 아픈거 맞아? 꾀병 아닌가?' 하시는 것 같았다.

중국과 다른 러시아 음식들이 맛있었지만 한가지 한가지 다 돈으로 계산해서 조금 깍쟁이 같다는 생각을 했다. 점심을 먹은 뒤 발해의 옛성터 솔빈부에 가서 발해의 옛 숨결을 느끼고 초원을 거닐어 보며 사진도 찍고 내려왔다. 난 그 옛날에 이곳을 말 타고 달렸던 것만 같았고, '우리 땅인데 왜 찾지 못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라쌤이 세계시민의식에 대해서 버스에서 설명해주셨다. 세계시민의식(global citizenship)은 모든 사람들이 특정한 국가나 장소의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철학과 감각을 가지고 세계의 일원이 되는 것이라고 하셨다. 어른들과 함께 발해탐방을 다닌다고 해서 처음에 걱정도 많이 하고 학교선생님들처럼 잔소리하실까봐 조금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함께 다니니 좋은 점이 더 많았다. 이상설유허비, 최재형 생가, 신한촌을 둘러보고 고려인 문화센터로 가서 왜 고려인이 중국과 러시아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 관람을 했다. 관람 중 아리랑을 부르시는 영상이 있었다. 그 영상은 우리나라의 아리랑과 고려인 전통의 아리랑을 비교해주는 영상이었는데 마치 양쪽에서 대화하는 것 같았다. 울컥했다.

우린 고려인 마을로 갔다. 고려인 마을에서 생활하는 분들께 그림책과 가져간 선물들을 전달했다. 한글학교대표 선생님과 잠깐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을에서 저녁밥을 준비해주셔서 모두들 식당으로 갔다. 아쉽게도 난 체해서 못 먹었다. 그 뒤에 들은 얘기로는 된장국이 한국이랑 똑같았다고 했다. 나는 다시 식당으로 들어가 수지침으로 나의 열손가락을 다 땄다. 따끔했지만 참을만했다 우리의 일행 중 한 명이 내가 손을 따는 걸 동영상으로 남겼다. 이제 우리는 고려인 마을 사람들과의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다시 차를 타고 숙소로 같다.

숙소에 도착하니까 너무 졸렸다. 하지만 우리 일행인 쌍둥이 동생 생일 파티를 준비했다. 케이크는 선생님께 부탁해서 사왔고 컵라면과 과자는 우리가 준비했다. 쌍둥이 방으로 가서 생일파티를 했다. 우리는 케익과 과자를 먹으며 러시아에서 마피아 게임을 했다. 하지만 나를 포함한 몇몇 친구들은 중국에서 탈난 게 아직 덜 나아서 주전부리들을 못 했다. 숙소로 돌아와 너무 피곤해서 바로 잠들어 늦게까지 잤다.

(여주 여강중학교 3학년 권현)

이제 발해여행 5일차, 사실상 마지막 일정을 시작했다. 우스리스크역에서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으로 이동했다. 사진으로만 보았던 시베리아횡단열차는 조금 낡았지만 재미있었다. 책읽는 플래시몹도 하고 열차 안에서 바라본 러시아의 풍경은 정말 너무 아름다웠고 태어나서 처음 보는 풍경들이 너무 매력적이었다. 우리는 블라디보스톡역에 내려서 비오는 날 혁명광장에 서서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에 갔는데 부산코너가 있어서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다. 여주코너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발해박물관에서 발해역사와 러시아 역사를 관람하고 아르세니예프 박물관에서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물건들이 많아서 신기했다. 우리는 자유시간이어서 우리들끼리 다녀서 재미있었다. 선생님은 비도 오는데 러시아 책을 한 보따리 사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저녁엔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던 평양식당에 갔다. 식당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모두 북한 분들이어서 우리말을 쓰니 마음이 포근하고 편했다. 말이 같다는 것, 우리 동포라는 것, 그리고 문재인대통령이 잡수셔서 유명해진 평양냉면을 맛본다는 것, 모두 다 새로운 경험이었다. 여행일정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여주 세정중학교 1학년 김가람)

블라디보스톡의 마지막 잠에서 눈을 떴다. 나는 배가 많이 아파서 전날 밤 러시아병원 응급실에서 밤을 보내야 했다. 외국병원에서 맹장이라는 얘기를 들으니 갑자기 이용악 시인의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라는 시가 떠올랐다. 낮에 그 시를 읽어주셨을 때 감수성이 풍부해서 뭉클한 느낌이 있었는데 외국병원 침대에 누워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과 선생님들이 걱정하시며 나를 간호해주시니 낮에 부드럽게 읽어주시고 해설해주셨던 느낌이랑 다르게 슬픈 생각이 들었다. 일행들과 돌아오는 비행기에 탔다가 내가 맹장인 거 같다고 기장이 탑승을 거부하는 바람에 나와 권선생님만 비행기에서 내렸다. 다시 병원으로 갔다가 다행히 밤12시 비행기를 타고 러시아를 탈출할 수 있었다.

집에 못갈까 봐 걱정을 많이 했다.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중국과 러시아에서 밤마다 마피아 게임을 하면서 친해졌던 일행들, 책 읽어주기 한다고 모여서 연습했던 일, 녕안시 친구들한테 우리말만 쓰기 위해 영어 안쓰기 게임 했던 거, 녕안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었던 일, 외국에 나가서 우리 그림책을 만나니 너무 반가워서 한 권을 다 읽어버렸던 일, 힘들기도 했지만 평생 잊지 못할 여행이었다. 언젠가 다시 갈 수 있다면 꼭 다시 가보고 싶다.

(여주 세정중학교 1학년 김종현)

학도넷 소식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학도넷 활동소식입니다.

학도넷 행사

- **2018년 9월 15일** 학도넷 소식지 가을호 발행(총권 46호)
- **2018년 9월 18일~20일** 2018 중국 동북3성 조선족학교 도서관담당교사연수
- **2018년 11월 19일~22일** 2018 중국 조선족학교 도서관 담당교사 초청연수
- **2018년 12월 12일** 2018 학도넷 후원의 밤

신입회원 (2018년 9월~2018년 11월)
정회원 : 황순영 남규조 김은승 이신애 문진아
웹회원 : 환원민

회비 및 후원내역 (2018년 9월~2018년 11월)
정회원 회비

- 매월 5천원 : 강복숙 강정미 곽정은 구미숙 권도경 권시애 길미숙 길영희 김경숙(보령) 김누리 김대경 김동헌 김리라 김선영 김소원 김심환 김영신 김은승 김은영 김은하 김정숙 김정윤 김정혜 김하나 남규조 마민희 문수지 문원림 박미영 박선미 박은하 박준섭 백경숙 백연주 서미혜 서정원 선보배 성주영 성미경 송경영 송명원 송숙영 송혜영 신은미 신정임 신정화 신형란 안경애 안정원 안희정 양은주 유영숙 유정원 윤남미 윤소영 이금화 이규선 이미순 이선화 이신애 이영선 이영주 이유정 이은혜 이주영 이진옥 이 현 이현애 이혜진 임경순 임지은 장부자 정명하 정미순 정수연 정영희 정은희 조영순 주상태 차진미 채재현 최민영 하은경 한은미 황순영 허지은 허지연
- 매월 1만원 : 강애라 강지영 권향미 김경숙 김은영 김순흥 김승주 김신희 김옥위 김종성 김진희 김진희(관악) 김효숙 라순희 류주형 문예원글로피아 박 샘 박정해 변영이 백화현 송추향 안미정 오현애 오희애 유은실 이경자 이규향 이기영 이덕주 이문숙 이미경 이소연 이영주 이재선 이찬미 정수현 정영희 정지영 정진수 조길량 조선희 조은영 조의래 최진영 한명숙 허경림 황봉희
- 매월 2만원 : 김순정 박은숙
- 매월 3만원 : 도서출판 북극곰, 고래가숨쉬는도서관
- 연회비 : 문진아(6만) 박영옥(10만)
- 정기후원 : 문학동네(매월 20만원)

준회원 회비

- 매월 : 김미령(3천) 김민형(2천) 김송요(2천) 김송현(2천) 박영혜(3천) 박인자(3천) 박정미(3천) 박종숙(3천) 성양기(3천) 손은상(2천) 손은서(2천) 손은재(2천) 송권형(1천) 신수인(3천) 염효경(3천) 이영희(3천) 이인문(3천) 이재경(3천) 이제희(2천) 장벼리(3천) 장한솔(2천) 조성우(3천) 최선옥(3천) 최유미(3천) 최창의(3천) 홍선희(3천)

학도넷은 2015년부터 중국 동북3성 조선족학교도서관 30여 곳에 어린이잡지 (월간)개똥이네놀이터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러 선생님과 단체들이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귀한 마음을 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숙현(이비채) 길림성 통화시 조선족학교
김정숙 료녕성 단동시조선족중학교
변영이 료녕성 무순시신화조선족소학교
김은영 흑룡강성 상지시조선족중학교
기정아 길림성 장춘시조선족중학교
권진숙 흑룡강성 녕안시조선족중학교
이영주 길림성 장춘시조선족소학교
최경희 흑룡강성 오상시조선족실험소학교
조원희 길림성 영길현조선족실험소학교
이해연 길림성 장춘시제2조선족중학교
손종도 길림성 연길시공원소학교
박정해 료녕성 심양시우홍구조선족오가황중심소학교
강애라 오상시조선족중학교
이현숙 길림성 연길시6.1유치원
안덕희 길림성매화구시조선족중학교
오희애 길림성반석시조선족소학교
최지영 길림성류하현조선족학교
하은경 료녕성심양시서탑조선족소학교
오현애 조선족중학교강범철
박영옥 료녕성심양시황고구화신조선족소학교
이지현 만융조선족실험소학교
이주영 길림성 용정실험소학교
박은민 길림성 조양천소학교
박은숙 길림성반석시조선족실험소학교
최정순 료녕성 신화조선족소학교
김호선 흑룡강성 아성구조선족소학교
이옥한 조선족중심소학교
이남지 길림성 장백현조선족실험소학교
신향경 길림성 연길시 조양천유치원
이옥한 중국 내몽고흥안맹우란호트조선중학교
보리노조 길림성 서란시조선족실험소학교
보리노조 흑룡강성 상지시조선족소학교
보리노조 흑룡강성 할빈시동력조선족소학교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길림성훈춘시제1실험소학교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길림성집안시조선족학교

새로 나온 책 보내주신 곳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토토북)/최제우, 용천검을 들다(토토북, 탐)/어게인 별똥별(글라이더)/속담으로보는 스토리경제학(글라이더)/상냥한 수업(양철북)/딸꾹(북극곰)/안녕, 세계의 친구들(샘터)/팔씨름(샘터)/언니, 페미니즘이 뭐야?(토토북, 탐)/씨앗 100개가 어디로 갔을까(토토북)/달에서 봤어(토토북) 오싹오싹 팬티!(토토북)/아무것도 안하는 날(단비)/메밀꽃 질 무렵(단비)/방학에 뭐하니? 봉사여행 어때?(단비)/오늘 참 예쁜 것을 보았네(북극곰)/침대 밑 괴물(북극곰)/과학, 사춘기를 부탁해(탐)/회오리 소풍, 햄버거 나라 여행, 웃는 귤, 민들레 꽃 피는 민들레네 집, 엄마 보고 계시죠?(나한기획)/안녕, 내 이름을 페미니즘이야(동녘)/로미오와 줄리엣이 첫눈에 반할 확률은?(뭉치)/조선특별수사대 1, 2 비밀의 책 목민심서, 완성된 문양의 전설(비룡소)/나의 지도책(소동)/달콤한 알, 나에게 작은 꿈이 있다면(소원나무)/수학의 언어로 한글을 만드노니(평사리)/산타와 함께 춤을(북극곰)/뭐든지 할 수 있어(북극곰)/구름버스타기(브로콜리숲)/인권연대의 청소년 인권특강(철수와 영희)/고래어린이인문학교(철수와 영희)/노동, 우리는 정말 알고있을까?(철수와 영희)/시가 있는 바닷가 어느 교실(양철북)/밥보다 일기(책밥상)/산책(북극곰)/보들보들(북극곰)/일 좀 하는 어니들이야기(글라이더)/인물과 실험으로 보는 스토리 물리학(글라이더)/꽁꽁산 소보로별이야기(샘터)/길리만자로에서, 안녕(비룡소)/처음 만나는 북유럽신화(원더박스)/동박새를 사랑했네(별숲)/하늘로 날아간 꼬마열차(별숲)/실학자 이덕리와 동다기(글항아리)/용감한 젊은이와 땅속나라괴물(도토리숲)/너에게 난, 나에겐 넌(한솔수북)/나의 서울대 합격수기(단비)/열한살 미영(나는책)/반짝반짝(단비)

소식지 보내주신 곳

맨발동무(어린이도서관 맨발동무)/ 책&(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도서관문화(한국도서관협회)/ 학부모신문(참교육학부모회)/ 놀이하는사람들(사)놀이하는사람들)/ 고래가숨쉬는도서관 겨울호(고래가숨쉬는도서관)/ (월간)개똥이네 놀이터(보리)/ 어린이문화연대/ 서울교육 겨울호(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부산 보수동책방골목어린이도서관소식지/ 동화읽는어른(어린이도서연구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학교도서관저널

***보내주신 소중한 자료들은 학교도서관활성화를 위해 귀하게 쓰겠습니다. 계속적인 광고와 도서후원을 기다립니다.**

2018 중국 동북3성 조선족학교 도서관담당교사연수 기획 진행했습니다.

학도넷은 지난 2015년부터 4년째 중국 동북3성(내몽골자치주 포함) 조선족학교 학교도서관 담당교사연수를 주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및 주최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하고 있구요. 올해는 교육연극과 보드게임을 주제로 2018년 9월 18일–20일까지 길림성 성도인 장춘의 장춘조선족중학교에서 진행했습니다. 해마다 연수를 마치고 오면 조선족학교마다 실천들이 돋보입니다. 조선족 학교들의 사례발표들로 확인하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올해는 연수를 마치고 윤동주생가와 용정 일송정, 도문(두만강변) 국경까지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2018 중국 동북3성(길림성, 뇨녕성, 흑룡강성) 조선족학교 도서관담당교사 한국 초청연수 기획주관 진행을 맡아했습니다.

2016년부터 3년째 조선족학교도서관담당교사 한국초청연수 내용을 기획주관해서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서울시교육청 예산지원으로 20명 선생님이 한국방문을 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주최하고 학도넷이 기획주관해서 2018년 11월 19일(월)~11월 22일(목) 4일간 송곡여고도서관 → 서울청계초도서관 → 서울삼정중도서관 → 파주출판단지(개똥이네놀이터 편집팀방문, 활판공방, 지혜의숲)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정독도서관에서 워크샵과 참관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방문선생님들은 한국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독서활동 참여에 크게 자극받고 가셨습니다.

학도넷 겨울사서연수 합니다.

- **목적** : 그림책의 다양한 영역을 함께 읽으며 탐색하고 도서관 교육에 활용한다.
- **목표**
  - 다양한 그림책을 추천할 수 있고 창의적인 질문 만드는 방법을 지도할 수 있다.
  - 그림책으로 삶과 죽음, 상실에 대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에 싱킹맵(thinking map)을 활용할 수 있다.
- **강사** : 임경희 선생님(상지초등학교 교사)
  - 싸나톨로지스트(Thanatologist 죽음교육연구자)
  - 서울시 독서지원단(그림책 활용 수업, 한 학기 한 권 읽기 관련 강의)
  - kbs 스페셜 '죽음이 삶에 답하다' 출연
    https://blog.naver.com/1109peace/221394798572
- **강의일정** : 홈페이지 참조
- **주최**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때** : 2019년 1월 16일(수)~18일(금) 10~17시
- **곳**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강당
- **대상** : 학생과 교사, 교실과 도서관을 풍부하게 연결하고 싶은 초중등 사서(교사), 도서관담당교사, 자원활동가 30명
- **읽어오기** : 『프린들 주세요』, 『사자왕 형제의 모험』, 『마당을 나온 암탉』

학도넷 사무공간 이전했습니다.

지난 8월 학도넷 사무공간이 이사를 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다락골길 164–24

순수 시민단체인 학도넷의 재정은 회원님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이루어집니다. 후원금과 회비는 학도넷의 재정자립과 안정된 활동을 보장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국민은행 **356201–04–173422**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학도넷)